

## 靑銅器 花紋 연구 비교 고찰

오 제 중  
(건국대학교)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宋代와 民國 이후의 청동기 花紋의 내용과 성과를 대상으로 이들 두 시대의 학술적 성취를 비교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의 청동기 연구 역사에서 청동기 花紋 연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학술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청동기를 연구하는 것은 종합적 성격의 학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청동기 위에 새겨진 銘文이나 청동기를 분류하는 것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청동기 花紋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진행되었다. 청동기 花紋은 考古學과 神話學 등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으며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청동기 연구는 宋代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清代에는 청동기에 대한 연구가 다시 부흥했지만 청동기 花紋에 대해서는 특별한 학술적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民國 시기에 이르러 청동기 花紋 연구는 宋代의 뒤를 이어서 수준 높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주제어 : 청동기, 화문, 송대, 민국, 비교

### 1. 緒 論

靑銅器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金文學은 문자뿐만 아니라 器物과 관련된 여러 영역을 연구하는 종합적 성격의 학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金文 연구는 청동기 위에 새겨진 銘文이나 器物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 등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비해 器物의 외부를 장식하고 있는 花紋<sup>1)</sup>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청동기에

서 발견되는 花紋은 金文學뿐만 아니라 美學, 考古學, 神話學 등의 여러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先人들의 상상력과 인문학적 사유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金文學 역사에서 본격적인 청동기 연구가 宋代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앞서 언급한 銘文이나 器物의 형상 이외에 花紋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송대에는 金文學의 발달과 더불어 花紋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대표적인 金文學 저서인 呂大臨이 편찬한 『考古圖』와 王黼가 편찬한 『宣和博古圖』에서는 花紋의 명칭에 대한 定名, 花紋을 활용한 청동기의 斷代 그리고 花紋의 의미 및 기능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향후 花紋 연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sup>2)</sup>

이후 元代와 明代를 거치며 金文學이 쇠퇴하면서 花紋 연구에도 별다른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清代에 들어서서 당시 考證學의 영향으로 金文學은 다시 한 번 부흥했지만 역시 銘文 및 名物制度 등에 주력하였다.<sup>3)</sup> 따라서 청대 말기 이전까지는 宋代에 비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清代의 花紋 연구 역시 별다른 학술적 성과가 없었다.<sup>4)</sup> 하지만 이후 民國 시기에 이르러 花紋 연구는 宋代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의 대표적인 金文學 연구자인 容庚과 郭沫若 등이 청동기 花紋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容庚은 그의 역작인 『商周彝器通考』에서 다양한 花紋을 수집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金文學 역사에서 花紋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대는 바로 宋代와 民國 시기이다. 물론 이 두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도 花紋과

- 
- 1) 청동기 표면에 장식되어 있는 문양에 대해 花紋, 紋飾 등의 명칭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容庚의 『商周彝器通考』를 참고하여 花紋으로 통일하여 칭한다.
  - 2) 『考古圖』와 『宣和博古圖』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容庚, 「宋代吉金書籍述評」을 참고할 수 있다.
  - 3) 「元明清時代紋飾研究成績甚微, 可取之處不是很多。」(원대, 명대, 청대의 화문 연구의 성적은 심히 미약하여 취할만한 것이 많지 않다.) 張俊成, 「商周青銅器紋飾研究史述要」, 38쪽.
  - 4) 「清人對紋飾定名的標準略顯草率, 且隨意性較大, 其學術研究價值也就大打折扣了。」(청대 사람들은 화문 정명에 대한 표준이 다소 정교하지 못하고 자의성이 비교적 커서 그 학술 연구의 가치 역시 크게 줄었다.) 張凱, 「商周青銅器紋飾研究綜述」, 169쪽.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수준에서 따라오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宋代와 民國 이후의 청동기 花紋 연구의 내용과 성과를 대상으로 이들 두 시대의 학술적 성취를 비교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의 金文學 역사에서 花紋 연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金文學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학술적 가치를 돌아보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연구 목표이다.

## 2. 宋代 이전의 靑銅器 花紋의 기록

宋代 이후 花紋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어 일정한 학문적 성격을 갖기 이전에도 일부 문헌 등에서 花紋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 宋代 이전의 花紋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宋代 이전에는 花紋과 관련해서 『呂氏春秋』, 『春秋左氏傳』 그리고 『史記』 등에서 일부 기록이 산재되어 발견된다. 특히 이들 중 『呂氏春秋』에서는 花紋과 관련한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周鼎著饜饗, 有首無身, 食人未咽, 害及其身, 以言報更也, 爲不善亦然.<sup>5)</sup>

(주대의 정에는 도철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데 이는 사람을 아직 삼키지 않았음에도 살육이 자기 몸에 미쳐 있다는 것으로 대가를 꼭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선하지 않은 일을 해도 역시 그러하다.)

周鼎有竊曲, 狀甚長, 上下皆曲, 以見極之敗也.<sup>6)</sup>

(주대 정에는 절곡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모양이 매우 길고 위아래가 모두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것은 실패할 것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5) 呂不韋, 『呂氏春秋』, 先識覽·先識.

6) 呂不韋, 『呂氏春秋』, 離俗覽·適威.

〈饕餮紋〉<sup>7)</sup>〈竊曲紋〉<sup>8)</sup>

이처럼 『呂氏春秋』에서는 饕餮紋이나 竊曲紋과 같은 花紋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전자에서는 饕餮이라는 대표적인 신화 속 상상의 동물을 인용하여 탐욕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周代 청동기 花紋에서 饕餮을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형상으로 새겨 넣은 것은 이것의 성질이 포악하여 사람을 잡아 삼키기도 전에 그 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후자는 벌레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벌레의 특징은 길고 구부러진 모양인데 이것은 형벌을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실패하게 되므로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花紋에 대한 기록은 이것을 객관적 연구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禮敎와 敎化의 목적을 다분히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은 花紋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결여되어 상세하지 않으며 전체 문헌 속에서 花紋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宋代 花紋과 비교하면 내용과 수량에 있어서 분명하게 대비 된다. 예를 들어 宋代 花紋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足象雌形，上爲鼻，下爲尾，高而且長，其兩耳亦鏤雌。……其身四周，隱起獸面，蓋饕餮之象也。古者，鑄鼎象物，以知神姦，鼎設此象，蓋示飲食之戒。<sup>10)</sup>

(다리에는 원숭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윗부분은 코이고 아래는 꼬리로써 높고도 길다. 그 양 귀에도 원숭이 화문이 새겨져 있다. ……몸체의 네 주위에는 짐승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데 대개 도철문의 형상이다. 고대에 청동기를 주조하여 사물을 새기는 것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괴이한

7) 容庚, 『殷周彝器通考』, 100쪽. 圖55.

8) 容庚, 『殷周彝器通考』, 133쪽. 圖191.

9) 김근, 『여씨춘추』, 428쪽, 577쪽.

10) 王黼, 『宣和博古圖』, 卷二, 周文王鼎.

것을 알게 함이다. 청동기 정에 이러한 형상을 새긴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청동기에서 花紋이 차지하는 위치와 형상에 대해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花紋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전 시기에 비해서 자세히 풀이하고 있으며 전체 문헌에 등장하는 수량의 풍부함 역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종합하면 宋代 이전의 花紋에 대한 기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여러 곳에 산재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花紋을 아직 객관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결국 당시의 花紋과 관련한 내용은 학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花紋 연구의 시작은 宋代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宋代 青銅器 花紋 연구

#### 3.1 宋代 花紋 연구의 내용

宋代는 金文學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저서가 출간되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은 呂大臨의 『考古圖』와 王黼의 『宣和博古圖』이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宋代 花紋 연구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그 성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考古圖』는 金文學 저서의 체제 설정 및 청동기의 著錄 방식 등에서 기초를 확립했다. 기본적인 著錄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청동기의 명칭과 소장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다음으로 청동기의 외형을 描繪한 뒤에 銘文을 摹錄하고 考釋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동기의 出土 장소와 크기 등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후 각종 器物을 수록하는 圖錄集의 표준이 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 가운데 器物 분석의 범위를 銘文뿐만 아니라 器物의 형상과 花紋까지 넓힌 것을 주목할 수 있다.<sup>11)</sup> 呂大臨은 청동기 圖錄을 만든 이유를

11) 李濟, 「中國古器物學的新基礎」, 『李濟考古學論文選集』, 60쪽. 「他們開始, 並且很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觀其器，誦其言，形容髣髴，以追三代之遺風，如見其人矣。以意逆志，或探其制作之原，以補經傳之闕亡，正諸儒之謬誤。天下後世之君子，有意於古者，亦將有攷焉。<sup>12)</sup>

(그 기물을 보고, 그 명문을 읽는 것은 삼대의 유풍을 좇아 그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 나의 뜻으로 만든 사람의 뜻을 맞아들이니 혹은 그 제작의 원리를 찾아서 경전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여러 유가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천하의 후세 군자들이 옛 것에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살필 것이다.)

즉 선현들이 남긴 고대 유물을 통해서 經典과 儒家의 부족함 보완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편찬 의도는 수록된 花紋에도 영향을 끼쳐서 花紋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禮敎의 색채가 농후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의 연구 성과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宣和博古圖』의 청동기 수록 체례는 먼저 각 器物의 圖錄을 신고 銘文은 摹錄 하였다. 이와 함께 器物의 크기, 용량, 중량 등을 기록한 것은 『考古圖』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出土 장소와 소장 이력 등은 기록하지 않았다. 『宣和博古圖』는 수록된 청동기의 학술적 분류와 사료로서의 가치는 『考古圖』에 비해 우수하지만 器物에 대한 연구, 특히 花紋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해석은 적지 않은 억측과 단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13)</sup> 이러한 극단적인 예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成功地，用圖象摹繪代替文字描寫；所測量的，不但是每一器物的高度、寬度、長度，連容量與重量都紀錄下了；注意的範圍，已由器物的本身擴大到它們的流傳經過及原在地位；考訂的方面，除款識外，兼及器物的形制與文飾。」(그들은 도상을 그리는 것으로 문자 묘사를 대체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다. 측량에 있어서는 각 기물의 높이, 넓이, 길이뿐만 아니라 용량과 중량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주의를 기울인 범위는 기물 자체에서 그들의 유전 경과 및 본래의 위치까지 확대되었다. 고석에 있어서는 명문 이외에 기물의 형태 및 화문 장식까지 함께 살폈다.)

12) 呂大臨, 『考古圖』, 考古圖記.

13) 「其荒陋而可笑者莫若『博古圖』。」(그것의 황당하고 볼품없이 가소로운 것은 『博古圖』만한 것이 없다.) 洪邁, 『容齋隨筆』, 140쪽.

擬而象之百物，咸備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故圓以象乎陽，方以象乎陰，三足以象三公，四足以象四輔，黃耳以象才之中，金鉉以象才之斷，象饗饗以戒其貪，象雌形以寓其智，作雲雷以象澤物之功，著夔龍以象不測之變<sup>14)</sup>

(은갖 물건을 모방하고 본떠 신명과 통하는 덕을 모두 갖추어 만물의 본성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둥근 것은 양을 상징하며, 모난 것은 음을 상징하며, 세 다리는 삼공을 상징하며, 네 다리는 사보를 상징하며, 황금 귀는 재주가 있음을 상징하며, 쇠 귀는 재주가 끊어짐을 상징하며, 도철문은 그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며, 원숭이 형상은 그 지혜를 비유하는 것이며, 비와 우레는 만물을 운택하게 하는 공을 상징하는 것이며, 기룡을 새긴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陰陽의 원리, 세 명의 최고의 大臣을 나타내는 三公 그리고 天子를 보좌하는 네 측근을 나타내는 四輔 등을 청동기의 형상에 비유하고 또한 饗饗紋, 雌紋, 雲雷紋, 夔龍紋 등의 花紋이 상징하는 바를 비유하여 설명한 것은 고대 儒敎의 禮法을 지나치게 신봉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부 牽強附會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考古圖』와 『宣和博古圖』는 청동기 수록 방식에 있어서 후세에 규범이 되는 새로운 기원을 열었으며<sup>15)</sup> 특히 그 중에서도 花紋의 가치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수집한 것은 金文學 연구의 지평을 넓힌 분명한 성과이다.

### 3.2 宋代 花紋 연구의 성과

이하의 내용에서는 『考古圖』와 『宣和博古圖』를 대상으로 宋代 花紋 연구의 대표적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동기 花紋의 내용 연구에 앞서 종류를 分類하고 명칭을 결정하는 定名은 가장 기초적인 연구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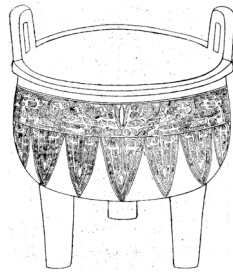
14) 王黼, 『宣和博古圖』, 卷一, 總說.

15) 「竊謂考古博古二圖，摹寫形制，考訂名物，用力頗鉅，所得亦多。乃至出土之地，藏器之家，苟有所知，無不畢記，後世著錄家當奉爲準則。」(말하자면 『考古』와 『博古』 두 저록은 기물의 형태를 모사하고 명물을 고증하는데 자못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 역시 많았다. 출토된 장소에서 소장자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는 것은 기록을 마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후세 기물을 수록하는 이들에게 준칙으로 받아들여졌다.) 王國維, 『宋代金文著錄表序』, 『觀堂集林』, 294쪽.

殷周 시기 청동기가 등장한 이래로 花紋은 원래 고정된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여러 사람들이 정한 花紋의 명칭과 분류는 서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었다. 과거 花紋의 명칭은 앞서 살펴본 『呂氏春秋』의 예와 같이 ‘周鼎著饗饗’, ‘周鼎有竊曲’ 등과 같은 형식이었다. 이와 같이 비록 명칭은 있지만 형상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지 않은 기록은 花紋 연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考古圖』와 『宣和博古圖』에서는 花紋의 명칭과 문양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직접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 花紋인 饗饗紋의 명칭은 상상 속 동물 문양과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그 명칭을 얻게 되었다. 『考古圖』에 기록된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鼎文作龍虎，中有獸面，蓋饗饗之象。『呂氏春秋』曰，「周鼎著饗饗，有首無身，食人未咽，害及其身。」『春秋左氏傳』「緡雲氏有不才子，貪于飲食，冒于貨賄，天下之民謂之饗饗。」古者，鑄鼎象物以知神姦，鼎有此象蓋示飲食之戒。<sup>16)</sup>

(정의 화문은 용과 호랑이이며 중간에 짐승의 얼굴이 있는데 대개 도철의 형상이다. 『여씨춘추』에 이르기를 「주대 청동기에 주조되어 있는 도철이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의 몸을 물어뜯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에서는 「고대 제왕인 진운씨의 재주가 모자란 자손으로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빼앗아 천하의 백성들이 도철이라 하였다」 고대에는 청동기에 형상을 주조하여 신간을 알게 하였으니 청동기에 이와 같은 형상을 넣는 것은 무릇 음식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考古圖』卷一〈癸鼎〉

16) 呂大臨, 『考古圖』, 卷一, 癸鼎.

饗饗에 관한 『呂氏春秋』의 기록과 같이 고전에 들어 있는 내용을 찾은 후에 이것을 이용하여 器物의 형태와 花紋의 이름을 결정하는 定名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龍紋, 蟠虺紋, 鳳紋, 魚紋 등과 같은 상당수 화문이 『考古圖』와 『宣和博古圖』에서 定名되었으며 이들 명칭은 지금까지도 청동기 花紋의 학술적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花紋 자체의 명칭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청동기를 명명하고 분류하였다. 청동기의 명칭을 결정하는 題名法은 銘文의 내용을 활용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銘文이 없는 청동기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形制와 紋飾을 이용한 題名은 주로 無銘 청동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구성은 「花紋(혹은 形制)+器名」이 보편적이다.<sup>17)</sup> 그 중에서도 『考古圖』와 『宣和博古圖』에서는 花紋의 특징을 가지고 청동기를 題名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취하여 「直耳饗饗鼎」<sup>18)</sup>, 「龍文三耳卣」<sup>19)</sup>와 같이 花紋의 핵심적인 특징을 통해 명명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花紋의 특징을 근거로 청동기를 귀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했으며 더 나아가 花紋으로 청동기의 시기를 구분하는 斷代에도 활용하였다.

有腹著饗饗而間以雷紋者, 父乙鼎, 父癸鼎之類是也. ……有密布花雲或作雲雷迅疾之狀者, 晉姜鼎, 雲雷鼎之類是也. 有隱起饗饗間以夔龍或作細乳者, 亞虎父丁鼎, 文王鼎, 王伯鼎之類是也.<sup>20)</sup>

(배 부분에 도철문이 새겨있고 사이에 뇌문이 있는 것은 <부울정>과 <부계정>과 같은 종류이다. ……화운문이 뾰뾰하게 퍼져있거나 운뢰문이 빠르고 날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진강정>과 <운뢰정>과 같은 종류이다. 도철문이 드러나 있는 사이에 기룡문이나 세유문이 있는 것은 <아호부정정>, <문왕정>, <왕백정>과 같은 종류이다.)

17) 吳濟仲, 「靑銅器 題名法 試探」, 109쪽.

18) 呂大臨, 『考古圖』, 卷一, 直耳饗饗鼎. 「無銘識, 鼎腹有饗饗象文」.(명문이 없으며 청동기의 배 부분에 도철상문이 있다.) 명문이 없으므로 饗饗紋을 이용하여 청동기를 명명하였다.

19) 呂大臨, 『考古圖』, 卷四, 龍文三耳卣. 「無銘識」(명문이 없다.) 명문이 없으므로 龍紋을 이용하여 청동기를 명명하였다.

20) 王黼, 『宣和博古圖』, 卷一, 總說.

위의 예와 같이 청동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花紋을 대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류를 모아서 정리한 것은 花紋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당시에 이미 고려한 것이다. 또한 분류의 표준을 세운 것은 청동기의 시대를 결정하는 標準器, 즉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표준 청동기의 확립에도 영향을 주었다.<sup>21)</sup> 이와 같은 방법의 핵심은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청동기의 銘文, 형상 그리고 花紋 등을 표준으로 삼아서 연대를 알지 못하는 청동기와 비교하여 시대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花紋은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sup>22)</sup> 이처럼 청동기의 형상과 花紋은 경우에 따라 斷代를 결정하는 핵심 작용을 하는데 『宣和博古圖』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斷代法을 활용하였다.

是器獸足素耳，純緣之外作螭紋，而雷紋間之文鏤，皆周制也。<sup>23)</sup>

(이 기물은 짐승 모양의 다리와 질박한 귀를 가지고 있다. 가장자리 밖으로는 교룡문이 있으며 뇌문 사이에 명문을 새긴 것은 모두 주대의 제도이다.)

- 21) 標準器를 활용하여 斷代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郭沫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我是先選定了彝銘中已經自行把年代表明了的作爲標準器或聯絡站，其次就這些彝銘裏面的人名事跡以爲線索，再參證以文辭的體裁，文字的風格，和器物本身的 花紋形制，由已知年的標準器便把許多未知年的貫串了起來。」(나는 먼저 명문에서 자체적으로 연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표준기 혹은 연락처로 삼았다. 다음으로 이것의 명문 가운데 인명이나 사건을 단서로 하고 다시 문체의 체재, 문자의 풍격, 기물의 화문과 형태를 참고하여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표준기로 연대를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로 꿰었다.) 郭沫若, 『青銅時代』, 258쪽. 이처럼 民國 시대 이후 花紋 등을 標準器 선정에 활용한 연구법이 宋代에 일정 부분 기초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 22) 花紋과 斷代의 관계에 대해 郭沫若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大凡一時代之器必有一時代之花紋與形式，今時如是，古亦如是。故花紋形式在決定器物之時代上佔有極重要之位置，其可依據有時過於銘文，在無銘文之器則直當以形式花紋等爲攷定時代之唯一線索。」(무릇 한 시대의 기물에는 반드시 한 시대의 화문과 형식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도 이와 같으며 과거에도 역시 이와 같았다. 따라서 화문의 형식은 기물의 시대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때로 그 근거는 명문을 뛰어 넘으며 명문이 없는 기물에게는 형식과 화문 등이 시대를 고증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단서가 된다.) 郭沫若, 「毛公鼎之年代」, 94쪽.
- 23) 王黼, 『宣和博古圖』, 卷二, 周父己鼎.

觀其腹出雲氣，足著饗饗，制其古，而韻不凡，非周室無以作此。<sup>24)</sup>

(그 배를 보면 운기문이 드러나 있고 다리에는 도철문이 새겨져 있다. 오래전에 만들어 졌지만 기품이 평범하지 않으니 주왕실이 아니면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아래의 예는 현재 사용하는 標準器의 개념과 같이 연대가 분명한 器物을 가지고 비교하여 청동기의 시대를 추정하였다.

腹間作蟠虺，耳飾以雲紋，足皆狀獸，字畫與許子鐘切類，乃周末之物，但闕其蓋耳。<sup>25)</sup>

(배 사이에는 반규문이 있고 귀는 운문으로 장식했으며 다리는 모두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필획이 <허자종>과 매우 유사하니 바로 주대 말기의 기물이지만 그 뚜껑이 없을 따름이다.)

물론 지금의 청동기 斷代法의 시각으로 보면 비록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花紋을 서로 비교하여 청동기의 시대를 결정한 것은 그 학술적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밖에 宋代 연구자들은 청동기 花紋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考古圖』의 「癸鼎」에서 饗饗紋의 의미를 「鼎有此象蓋示飲食之戒」(청동기에 이와 같은 형상을 넣는 것은 무릇 음식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러한 해석법은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주관적이지만 청동기 花紋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龍紋과 雲雷紋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無銘，是器著象若龍，……善於變化而有利澤以及於物也。鼎之烹飪可以享上帝，可以養聖賢，其爲用大矣。所以特取象於龍，蓋以求配其類也。<sup>26)</sup>

(명문이 없으며 이 청동기에 새겨진 것은 마치 용과 같다. ……용은 변화를 잘 하여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데 이롭다. 정은 음식을 만들어서

24) 王黼, 『宣和博古圖』, 卷二, 周雝公緘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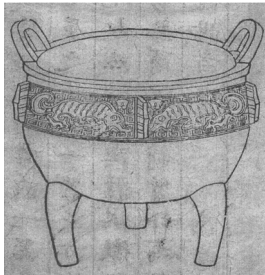
25) 王黼, 『宣和博古圖』, 卷三, 周威君鼎.

26) 王黼, 『宣和博古圖』, 卷四, 周龍鼎.

상제의 제사를 올리고 성현을 봉양할 수 있는 커다란 쓰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히 용의 형상을 취하여 무릇 그 부류를 걸맞게 하고자 함이다.)

蓋乳所以養人, 雲雷所以澤物, 夔龍者又所以戒其貪也. 舉一器而衆理備, 古人規度, 豈不美哉. ……然雲也, 雷也, 爲其有澤物之意, 故後世又加之雨以著其義焉.<sup>27)</sup>

(젓은 사람을 기르고, 구름과 우레는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기룡은 또한 탐하는 것을 경계하게 한다. 하나의 기물에 여러 이치를 갖추고 있으니 옛 사람들의 헤아림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따라서 구름과 우레는 만물을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세에 또 비의 문양을 더하여 그 의미를 드러나게 하였다.)



『宣和博古圖』〈周龍鼎〉



『宣和博古圖』〈周斜方雲雷鼎〉

물론 이러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또한 經典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花紋을 활용하여 經典의 이치와 도리를 부가시킨다는 효과 면에서는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 지나친 자의성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결여되기도 하지만 花紋의 형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엮듯이 풀어내는 기발한 상상력은 인정된다. 이상으로 『考古圖』와 『宣和博古圖』를 중심으로 宋代 花紋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물론 그들이 남겨 놓은 내용 가운데 일부 지나친 억측과 오류가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또한 花紋을 당시의 禮敎와 지나치게 결합하여 살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

27) 王黼, 『宣和博古圖』, 卷五, 周斜方雲雷鼎.

지만 그들이 花紋에 대해 주목하고 이루어낸 성과가 이후 청동기 花紋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4. 民國 시기 靑銅器 花紋 연구

### 4.1 民國 시기 花紋 연구의 내용

宋代 학자들이 花紋에 주목하여 일정한 성과를 이룩한 이래 元代와 明代 그리고 金文學의 부흥기인 清代를 거치면서도 연구자들은 花紋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이후 民國 시기에 이르러 대표적 금문학자인 容庚은 청동기 花紋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동시대에 활약했던 郭沫若 역시 花紋의 학술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들 두 학자를 중심으로 民國 시기 청동기 花紋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金文學 연구자들이 器物의 형상과 銘文 그리고 花紋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비교적 큰 결함이었다. 예를 들어 羅振玉과 王國維는 金文의 수집과 정리에 있어서 분명한 공헌이 있었지만 그들은 花紋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 하지만 容庚은 청동기 花紋의 가치를 중시했으며 연구자들이 銘文에 비해 花紋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하였다.<sup>28)</sup> 容庚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문자학 영역을 뛰어넘는 청동기의 形制, 銘文, 花紋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의 金文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29)</sup> 容庚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가 편찬한 『頤齋吉金圖錄』과 『武英殿彝器圖錄』에서 청동기의 銘文과 花紋을 함께 수록

28) 「吾國藏家，重文字而忽略花紋，重大器忽略小器，故此類器中土極少流傳。考古者他日或將求之外國。」(중국의 소장가들은 문자를 중시하고 화문을 홀시하며, 큰 기물을 중시하고 작은 기물은 홀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류의 청동기는 흠속에 묻혀 극소수만이 전해지기 때문에 고고학 연구자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을 혹시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容庚, 「評猷氏集古錄第二集」, 1656쪽.

29) 「形制，文字，花紋三方面的系統研究，正有待於我們今後的努力。」(형상, 문자, 화문 세 가지 방면의 체계적인 연구는 우리들의 이후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75쪽.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이 銘文과 花紋을 함께 수록하는 방식은 『頌齋吉金圖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sup>30)</sup> 容庚은 『武英殿彝器圖錄』의 序文에서 花紋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前代著書，重文字而忽花紋，欲考圖飾者恒有無所取材之歎。故撫拓花紋與文字並列，爲著錄者開其端。

(이전 시대의 저서는 명문을 중시하고 화문을 홀시하여 도상과 장식을 살피고자 하여도 자료를 취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화문과 명문의 탁본을 함께 열거하는 것은 금문 저록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아울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摹拓款識並及花紋，花紋精美非他書所及，言圖飾者當必有取于是也。<sup>31)</sup>

(명문의 모본과 탁본 및 화문을 함께 수록했는데 화문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서적이 따라올 수가 없다. 도상과 장식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취해야 한다.)



『頌齋吉金圖錄』〈作寶鼎〉腹紋



『武英殿彝器圖錄』〈文方鼎〉正面紋

30) 「正錄所收凡三十九器，附考釋於後。昔人著書，重視文字而忽略花紋，欲考圖飾者每有無所取材之歎。摹拓花紋與文字並列，自此書始。」(정편에서는 39개의 기물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고석은 뒤에 실었다. 옛 사람들의 저서는 명문을 중시하고 화문을 소홀히 하여 문양과 장식을 살펴보려고 해도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 따라서 모본과 탁본 그리고 화문을 명문과 함께 열거한 것은 이 책에서 비롯되었다.) 曾憲通, 「容庚先生學術貢獻述評」, 7쪽.

31) 容庚, 「宋代吉金書籍述評」, 72쪽. 이밖에 唐蘭 역시 이와 유사한 평가를 하였다. 「各器摹拓款識及花紋，花紋精美非他書所及，爲研究紋飾者一佳籍。」(각 기물마다 명문의 모본과 탁본 및 화문이 수록되었다. 화문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서적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 화문과 장식 연구에 가장 좋은 서적이다.) 唐蘭, 『古文字學導論』, 54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宋代 연구자들의 圖錄에서도 花紋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花紋은 청동기의 형상을 摹繪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으로 『武英殿彝器圖錄』과 같이 개별 花紋을 별도로 수록하지는 않았으며 그 정교함 역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銘文과 花紋을 함께 수록하기 시작한 것은 『頌齋吉金圖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武英殿彝器圖錄』은 수록된 花紋이 보다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두 서적 모두 지금까지도 청동기 花紋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 4.2 民國 시기 花紋 연구의 성과

容庚의 대표 저서인 『商周彝器通考』는 청동기의 형상과 花紋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서로 이러한 성과는 후일 청동기 花紋 연구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sup>32)</sup> 아울러 이 책에서 열거하고 있는 花紋은 무려 77종에 달하는데<sup>33)</sup> 이들 명칭 중 상당수는 宋代 연구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宋代 花紋의 定名에 관한 내용 중 당시 『呂氏春秋』와 같은 고전문헌 속 내용을 이용하여 花紋의 이름을 결정하는 定名法을 수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전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容庚 역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竊曲紋의 명칭을 결정하였다.<sup>34)</sup> 竊曲紋은 西周시대

32) 「1941년, 容庚教授所撰的『商周彝器通考』一書中首次系統地闡述了靑銅器形制和紋飾的各種類別及其時代的特點. 以後, 在各種有關中國靑銅器的專著和發掘報告中, 都非常注意紋飾的描述和分析」(1941년 容庚 교수가 편찬한 『상주이기통고』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청동기의 형상과 화문의 각종 유형 및 그 시대적인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후 각종 중국 청동기의 전문 저서 및 발굴 보고서에서 화문의 묘사와 분석을 대단히 주의하게 되었다.) 馬承源, 『商周靑銅器文飾』, 1쪽.

33) 饗饗紋, 蕉葉饗饗紋, 夔紋, 兩頭夔紋, 三角夔紋, 兩尾龍紋, 蟠龍紋, 龍紋, 虯紋, 犀紋, 鬲紋, 兔紋, 蟬紋, 蠶紋, 龜紋, 雷紋, 鉤連雷紋, 斜方格雷乳紋, 波形雷紋, 目雷紋, 三角雷紋, 四瓣花紋, 圓渦紋, 圈帶紋, 舟字紋, 乳紋, 直紋, 弦紋, 魚紋, 鳥紋, 鳳紋, 象紋, 鹿紋, 蟠夔紋, 仰葉夔紋, 斜角雷紋, 蛙藻紋, 蛟龍紋, 鱗紋, 瓦紋, 重環紋, 環帶紋, 垂鱗紋, 竊曲紋, 兩頭獸紋, 蟠蛇紋, 獸帶紋, 獸紋, 鳥獸紋, 立鳥紋, 戰鬪紋, 車馬獵紋, 獾紋, 象鼻紋, 象鼻紋, 鳥首紋, 垂葉獸紋, 垂葉象鼻紋, 蟠鳳紋, 獸面蟠螭紋, 斜格點紋, 浪花紋, 綉紋, 貝紋, 三角竊曲紋, 粟紋, 蝌蚪紋, 夔鳳紋, 蛇紋, 竊曲目紋, 圓花紋, 雲紋, 三角雲紋, 兩V相交紋, 蝠紋, 夔形鳥紋, 斜方花紋. 容庚, 『殷周彝器通考』, 99-156쪽.

후반 청동기에 주로 등장한다. 殷商代 이래 饕餮紋과 虺龍紋이 기하학 문양으로 변화하여 동물의 각 부분이 띠 모양의 곡선과 갈고리 모양이 되어 기본 형식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呂氏春秋』를 근거로 容庚에 의해서 명명된 것으로 『考古圖』의 사례와 유사하다. 하지만 77종에 이르는 분류는 비록 대단히 상세하지만 체계적인 분류가 되지 않아 다소 번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花紋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첨가되지 않아 기초 연구 자료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容庚은 청동기의 花紋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sup>35)</sup>

幾何形 紋樣

- (1) 雲紋, 雷紋 (2) 圓圈紋, 渦紋, 三角形紋, 方形紋 (3) 波紋, 繩紋

動物形 紋樣

- (1) 奇異한 動物 紋樣 : 饕餮紋, 夔紋, 龍紋, 鳳紋, 竊曲紋  
 (2) 寫實的 動物 紋樣 : 象紋, 蟬紋, 蠶紋, 魚紋, 龜紋, 貝紋, 虺紋, 獸紋, 鳥紋

敘事畫 紋樣

- (1) 車馬 狩獵圖 (2) 徒步 狩獵圖 (3) 戰鬥 紋樣

이러한 분류는 다소 간략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청동기의 花紋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청동기 花紋은 고대 예술로서의 가치 이외에 실질적인 金文學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清代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6)</sup> 이에 반해 郭沫若은 西周 청동기의 斷代

34) 『呂氏春秋』云「周鼎有竊曲, 狀甚長, 上下皆曲。」(『여씨춘추』에 이르기를 「주대 청동기에 절곡이 있고 모양이 매우 길다. 상하 모두 굽었다.」) 容庚, 『殷周彝器通考』, 132쪽.

35) 容庚, 張維持, 『殷周青銅器通論』, 103~120쪽.

36) 梁啓超는 청대 금문학 연구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而其花文雕鏤之研究, 亦爲美術史上可寶之資, 惜今尙未有從事者耳。」(화문과 조각에 대한 연구 역시 미술사에 있어서 귀한 자료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종사자가 없을 따름이다.)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51쪽.

연구에 있어서 花紋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는 먼저 청동기의 시대를 濫觴期, 勃古期, 開放期, 新式期로 나눈 뒤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以上時期之分, 除第一期外, 均有其堅實之根據, 而事且出于自然. 蓋余之法乃先讓銘辭史實自述其年代, 年代既明, 形制與紋績遂自呈其條貫也. 形制與紋績如是, 卽銘辭之文章與字體亦莫不如是.<sup>37)</sup>

(이상의 시대 구분은 제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견실한 근거가 있어서 또한 자연스럽다. 나의 방법은 먼저 명문의 사실로 그 연대를 자술하고, 연대가 분명해지면 형체와 명문이 스스로 조리 있게 꿰뚫어진다. 형체와 화문이 이와 같으니 명문의 문장과 자형이 이와 같지 아니한 것이 없다.)

즉 器物의 형태와 銘文 그리고 花紋을 시대 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花紋을 객관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花紋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宋代 연구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밖에도 郭沫若과 容庚이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花紋에 대한 당시 그들의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余意花紋形式之研究最爲切要, 近世考古學卽注意於此. 如在銅器時代以前之新舊石器時代之古物, 卽由形式或花紋以定其時期. ……如將時代已定之器作爲標準, 就其器之花紋形式比匯而統係之, 以按其余之時代不明者, 余意必大有創獲也.<sup>38)</sup>

(나는 화문 형식의 연구가 가장 필요하며 최근의 고고학도 바로 이 점에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동기 시대 이전의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의 고대 기물도 형식이나 화문으로 그 시대를 결정한다. …… 만일 시대가 이미 확정된 기물을 표준으로 하여 그 기물의 화문과 형식을 모으고 계통을 삼아서 나머지 시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어루만진다면 나는 반드시 커다란 수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定時乃花紋研究之吃緊事. 此與陶瓷研究及古新舊石器之研究同. 此事最難, 須就銘文之時代性已明者作爲標準, 逐次以推求之也. 花紋之時代性已定,

37) 郭沫若, 「彝器形象學試探」, 『周代金文圖錄及釋文』.

38) 1930년 4월 6일 편지. 黃淳浩(1992), 『郭沫若書信集』(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則將來無銘之器物或有銘而不詳者，其時代之辨別將有如探囊取物矣。<sup>39)</sup>

(시대를 정하는 것은 화문 연구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도자기 연구나 고대 신석기와 구석기 연구와 같다. 이 일은 가장 어려워져 반드시 명문의 시대가 이미 분명한 것을 표준으로 삼은 다음에 점차 구해야 한다. 화문의 시대가 이미 결정되면 앞으로 명문이 없는 기물이나 명문이 있어도 분명하지 않은 것의 시대 변별을 장차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들 두 사람이 당시 이미 청동기 花紋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郭沫若의 서신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의견은 후일 容庚이 편찬한 『武英殿彝器圖錄』의 花紋 수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容庚은 商代와 西周 그리고 東周 시기의 청동기의 형태와 花紋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남겼다. 그 중 金文이 가장 발달했던 西周 시기에 대해 분석한 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到了穆王(公元前1001~947年)以後，製銅工業比前期更爲發展，銅器的數量和種類都比前期多，周代自己的藝術風格也確立起來。器形一般穩重而樸素，紋飾趨於豪放，器類也有所增減。紋飾方面，過去盛行的雲雷紋衰落了，特別不作爲地紋之用。獸面紋也非常少見，寬平的帶狀紋盛行起來，形成有所謂竊曲紋(一種鉤曲的帶狀紋)，環帶紋，鱗紋，蟠雲紋，瓦紋等也新興起來。<sup>40)</sup>

(목왕(기원전 1001~947년) 이후 청동 제작 공업은 전기에 비해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청동기의 수량과 종류도 이전에 비해 많아져 주대 자신의 예술 풍격도 확립 되었다. 기물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온중하고 소박하며 화문도 호방해졌으며 기물의 종류 또한 감소하였다. 화문에 있어서는 과거 성행했던 운뢰문이 쇠락했으며 특히 지문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수면문 역시 매우 적게 보이며 평평한 대상문이 성행하여 절곡문(일종의 굽은 대상문)을 형성하였고 환대문, 린문, 반운문, 와문 등도 새롭게 성행하였다.)

39) 1931년 7월 17일 편지. 黃淳浩(1992), 『郭沫若書信集』(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0) 容庚, 「燦爛的商周青銅器藝術」.

이로써 시대에 따른 청동기의 형식과 花紋에 대해서 容庚은 이미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시대 구분의 중요한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청동기 花紋을 단순하게 모아서 편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제 金文學 연구에 활용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武英殿彝器圖錄』이다.<sup>41)</sup> 또한 容庚의 花紋 연구는 郭沫若의 『兩周金文辭大系』 등 후일 청동기의 시대 연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리하면 民國 시대 이후 金文學 연구자들이 花紋의 가치를 중시하고 청동기의 시대 결정에 응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容庚이 본격적으로 花紋을 수집 정리하고 郭沫若 등이 이러한 연구법을 계승 발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 5. 結 論

중국에서 金文學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宋代와 清代이다. 특히 宋代 이후 元代와 明代를 거치며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청동기 연구는 清代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는 주로 銘文과 器物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花紋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도리어 花紋에 대한 연구는 民國 이후에 들어서며 앞선 宋代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花紋 연구의 대표적인 시기는 바로 宋代와 民國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宋代 金文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청동기에 대한 연구는 器物의 형태, 銘文, 花紋 및 공예 등의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되었다. 宋代 학자들은 청동기를 三代 문화와 道德을 계승하는 객체로 보는 태도로 花紋을 대하였다. 대표적으로 『考古圖』와 『宣和博古圖』는 청동기 花紋 연구에서 적지 않은

41) 「容庚, 『武英殿彝器圖錄』, 從事于彝器紋縷之比較. 首載其全形, 次分析其形, 而以紋縷定年歲之早晚, 於古文字學又得一旁證之參攷. 此皆研究方法之勝于前人者也.」(용경은 『武英殿彝器圖錄』에서 청동기 화문을 비교하였다. 먼저 그 전체 형상을 수록하고 다음으로 그 형태를 분석하여 화문으로 시대의 빠름과 늦음을 감정함으로써 고문자학을 방증하는 참고가 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연구 방법을 뛰어 넘는 것이다.) 胡樸安, 『中國文字學史』, 605쪽.

공헌을 하였다. 특히 花紋에 대한 分類와 定名 등의 기초 작업은 이후 花紋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花紋이 담고 있는 의미를 지나치게 禮敎와 결합하여 주관적으로 풀이한 오류 역시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후 民國 시기로 들어서며 容庚과 郭沫若 등의 학자들에 의해 花紋 연구는 다시 한 번 도약하게 된다. 특히 容庚은 宋代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이고 禮敎의 입장으로 花紋을 대하던 태도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태도로 花紋 연구의 경지를 한 단계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성과가 民國 시기에 바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宋代 학자들이 이룩한 花紋의 定名이나 花紋을 斷代 등에 활용한 학문적 시각이 이후 民國 시기 花紋 연구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청동기 花紋 연구는 宋代 학자들의 업적을 民國 이후의 학자들이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단계를 거치며 성숙된 것이다.

## ■ 참고문헌

- 王黼, 『宣和博古圖』, 明萬曆本, 1603.
- 郭沫若, 『青銅時代』, 文治出版社, 1945.
- 郭沫若, 『周代金文圖錄及釋文』, 大通書局, 1971.
- 唐蘭, 『古文字學導論』, 齊魯書社, 1981.
- 馬承源, 『商周青銅器文飾』, 文物出版社, 1984.
- 呂不韋, 『呂氏春秋』, 臺灣商務印書館, 1985.
- 容庚, 『殷周彝器通考』, 文史哲出版社, 1985.
- 容庚, 張維持, 『殷周青銅器通論』, 康橋出版事業有限公司, 1986.
- 張光直, 李光謨編, 『李濟考古學論文選集』, 文物出版社, 1990.
- 胡樸安, 『中國文字學史』, 臺灣商務印書館, 1992.
- 黃淳浩, 『郭沫若書信集』(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 洪邁, 『容齋隨筆』, 吉林文史出版社, 1994.
- 王國維, 『觀堂集林』, 中華書局, 1994.
- 曾憲通, 『容庚文集』, 中山大學出版社, 2004.
-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里仁書局, 1995.
- 呂大臨, 『考古圖』,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김 근, 『여씨춘추』, 글항아리, 2012.
- 容庚, 「評猷氏集古錄第二集」, 『燕京學報』 제8기, 1930.
- 郭沫若, 「毛公鼎之年代」, 『東方雜誌』 제28권, 제13호, 1931.
- 容庚, 「燦爛的商周青銅器藝術」, 『藝林叢錄』 제8편, 1973.
- 容庚, 「宋代吉金書籍述評」, 『容庚選集』 天津人民出版社, 1994.
- 容庚, 「清代吉金書籍述評」, 『容庚選集』 天津人民出版社, 1994.
- 曾憲通, 「容庚先生學術貢獻述評」, 『容庚選集』 天津人民出版社, 1994.
- 吳濟仲, 「青銅器 題名法 試探」, 『中國語文學論集』 제20호, 2002.
- 張俊成, 「商周青銅器紋飾研究史述要」, 『內江師範學院學報』 제22권, 제3기, 2007.
- 張凱, 「商周青銅器紋飾研究綜述」, 『重慶科技學院學報』 제8기, 2009.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f Research for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Oh, Jae-J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se two eras with the content and performance of the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in the Song dynasty and age of the Minguo. We investigated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 research in Chinese bronze research history and examined their academic value.

Studying bronze ware is a scholarly study. In the past, research focused on classifying letters on bronze ware. However, research on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was neglected.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are associated with archeology and mythology studies and provide important clues as to the imagination of ancient people.

The study of bronze ware in China began with the Song dynasty. Since then, research on bronze ware has been revived in the Qing dynasty, although there has been no academic achievement regarding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However, at the age of the Minguo, the achievements of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continued to follow the Song dynasty.

Key Words : Bronze Ware, Decorative Patterns, Song Dynasty, Age of the MinGuo, Compare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